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이야

사무엘하 18장

◆ CHECK POINTS

- ①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에 맞서 처해졌던 상황은 무엇입니까?
- ② 압살롬이 패배하고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 ③ 아들의 죽음에 애통하는 아버지 모습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지난 몇 시간에 걸쳐 나눈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의 말씀은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 대하여 군사적 힘과 백성의 마음을 얻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 반역한 사건을 보여주었습니다. 압살롬의 능력으로 다윗은 순식간에 전멸될 수도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후새라는 벼를 통해 아히도벨의 모략을 파하고 구원받을 수 있었고 아히도벨은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무엘하 18장의 말씀을 통해 반역한 압살롬의 패배와 비참한 최후, 이어서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교훈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 다윗군의 준비와 승리 (1-8절)

다윗 왕은 유능한 정치인이자 사령관이었으나 그의 외도(삼하11장)에 이어지는 자녀 간의 갈등(삼하13장)과 아버지의 방관(삼하14장)으로 아들 압살롬의 반란(삼하15장)이라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순간의 죄에 대한 가혹한 심판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공격에 대비하여 군대를 셋으로 나누고 요압, 아비새, 잇대에게 각 부대를 지휘하게 하였고 자신도 직접 전체 군대를 지휘하고 나가려했습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의 계략에서 이미 드러난바 백성들은 상대가 다윗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혹 전투에서 승리해도 다윗을 잃으면 패배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 전쟁의 특수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을 맞서 싸우는 잔혹한 전장을 왕이 보지 않게 하기 위해 다윗의 참여를 끝까지 만류하였습니다.

다윗은 백성들의 호소를 받아 뒤에 서있기로 결정하고 군대를 앞서 보내며 자신의 아들,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사는 압살롬의 이스라엘군을 상대로 싸워서 크게 승리를 거둡니다.

- 삼하 18:5-8 그 때에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부탁하였다. "나를 생각해서라도, 저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오." 왕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여 달라고 모든 지휘관에게 부탁하는 말을, 온 백성이 다 들었다.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려고 들녘으로 나아가서, 에브라임 숲 속에서 싸움을 하였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였는데, 그들은 그 날 거기에서 크게 패하여서, 이만 명이나 죽었다. 싸움이 온 땅 사방으로 번져 나가자, 그 날 숲 속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이 길에 찢려서 죽은 군인보다 더 많았다.
- 왕상 18:21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 시 124:7,8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지므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 잠 29:25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상대를 진멸한 용장이었으나 그 대적이 아들이 되었을 때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채 본분을 다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죄악이 일으키는 파급은 실로 커서 국가와 공동체를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고 그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후반부는 죄악의 거대한 파장을 다윗과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 압살롬의 패배와 죽음 (9-18절)

다윗의 군사와 압살롬의 군사가 싸운 길르앗의 에브라임 숲은 이전 사사 시대에 입다가 암몬에 맞서 승리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일어난 동족 간 전쟁에서 압살롬 군사 2만 명이 전사하고 패전하게 되는데 그들이 군사의 칼이 아닌 수풀(힘한 지형과 웅덩이) 때문에 죽은 자들이 많다고 하여 하나님의 도움이 개입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때 요압은 압살롬이 나무를 타고 도망가다 머리채가 나무에 매달려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그를 유명하게 만들었던 강한 능력이 오히려 약점이 되었습니다.

요압은 보고하는 병사에게 압살롬을 죽일 시 보상의 가능성을 말하였으나 병사는 왕의 아들을 죽이는 일을 거절하며 요압의 속셈을 지적합니다.

요압은 즉시 압살롬을 살해하고 전쟁을 그치는 나팔을 불고서 돌무더기로 그 시신을 덮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군대를 상대하여 나아가는 아버지 다윗의 심정

- 삼하 18:5-8
- 왕상 18:21
- 시
- 욥 12:12,13
- 사 36:5,6

하나님의 도우심 다윗군의 승리와 교만한 압살롬을 살해하는 요압

- 삼하 18:9,14
- 시 2:2-4
- 습 1:18
- 약 4:16
- 벧전 5:16



"머리가 나무에 걸린 압살롬의 죽음"
(The death of Absalom, hanging from a tree by his hair) 14세기 독일 작품

삼하 18:9,14 압살롬이 어쩌다가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쳤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있었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의 울창한 가지 밑으로 달려갈 때에, 그의 머리채가 상수리나무에 휘감기는 바람에, 그는 공중에 매달리고, 그가 타고 가던 노새는 빠져나갔다. 그러자 요압은 "너하고 이렇게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하고 말한 뒤에, 투창 세 자루를 손에 들고 가서, 아직도 상수리나무의 한가운데 산 채로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꿰뚫었다.

시 2:2-4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꺾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습 1:18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약 4:16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벧전 5:6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압살롬의 결말은 “하나님께서서는 악한 이의 자랑거리를 결국 형벌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진리를 나타냅니다. 말씀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도 사람의 교만으로 인해 “화”가 되어 돌아오고, 받은 축복을 우리가 스스로 저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음도 보여줍니다.

힘을 자랑하는 이는 결국 힘으로 망하기에 주님의 사역을 위한 힘이라도 항상 겸손과 인내 아래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압살롬의 최후를 통해 다시 깨우쳐 주십니다.

◎ 압살롬의 결말, 다윗의 반응 (19-33절)

다윗에게 압살롬의 전사 소식을 전하는 것은 요압에게도 분명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전에도 대적이던 사울의 죽음(삼하1장)을 전했던 아말렉 소년, 이스보셋의 죽음(삼하4장)을 전했던 레갑과 바아나를 오히려 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때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요압의 만류에도 다윗에게 소식 전하는 일을 자청하고 먼저 떠난 구스인보다 앞서 가서 다윗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합니다. 아히마아스는 다윗의 마음을 미리 준비시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구스 사람의 보고를 듣고 다윗은 주체할 수 없는 슬픔으로 다락방으로 올라가 아들,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하고 통곡합니다.

다윗이 쿠데타를 성공적으로 제압했으나 기뻐할 수 없었고 전쟁에서 승리했으나 승전가를 부를 수 없었고 오히려 더 깊은 슬픔을 마지막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나단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 계획 속에 일어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삼하17:14)

삼하 18:32-33 왕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물었다. "그 어린 압살롬이 평안하더냐?" 에티오피아 사람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의 원수들을 비롯하여, 임금님께 반역한 자들이 모조리 그 젊은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성문 위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그는 올라갈 때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너 대신에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짚었다.

사 53:6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요 3:16,17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롬 5:8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다윗은 죄인된 아들 압살롬의 비참한 죽음 앞에서 “차라리 내가 아들을 대신하여 죽었으면 좋았겠다”며 크게 애통해 하였습니다. 이런 아버지 다윗의 모습은 항상 하늘 아버지를 거절하고 자기 성공과 명예만을 꿈꾸는 자녀들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죄인 된 이들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변치 않으시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분명히 보여졌고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절하고 반역하는 이들에게 아버지 사랑의 기쁜 소식(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떠나간 아들과 딸의 이름을 하나 하나 안타깝게 부르시며 따뜻한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길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 참고자료: 다윗의 아들, “압살롬” (Absalom)



“압살롬의 죽음”(The Death of Absalom) 18세기 색실을 넣어서 짜낸, 테피스트리 작품

압살롬(뜻: “아버지는 평안이다.)

압살롬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 중 셋째로, 그술왕 달매의 딸 마아가 어머니이다.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자로 용모가 매우 아름다워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미남으로 손꼽혔다.

하지만 누이 다말을 강간한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아버지 다윗을 두려워하여 외가에 숨어 3년간 있다가 요압의 주선으로 돌아 왔으나 2년간 부왕을 대면치 못하였다.

이후 군사들과 민심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켰고,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다윗의 후궁들을 범하는 죄를 지은 후 스스로 왕이라 자칭하였으나 결국 다윗의 군대에게 패하게 된다.

그의 능력을 상징하였던 “머리털”이 전쟁 중 상수리 나무에 걸리면서 요압에게 살해당하는 도구가 되는 불행한 결말을 맺게 되었다.